

# 桂枝加附子湯證에 대한 考察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방정균\*

## 對於桂枝加附子湯證的考察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方正均

桂枝加附子湯是由于太陽病誤治時出現的諸般症狀之處方. 許多醫家認為本證的病機是因亡陽兼津液脫. 但是這種說明法, 在病機與處方之間 發生了矛盾.

桂枝加附子湯不可用在津液耗損甚的證. 桂枝加附子湯證因不能運行陰液而發生小便難·四肢微急·難以屈伸等症, 所以加附子以布散陰液于全身. 但桂枝湯證猶尚存, 而且遂漏不止與桂枝湯的自汗症有差異, 所以用桂枝湯加附子以輔表陽的機能.

Key Words : 桂枝加附子湯, 遂漏不止, 運化陰液

## I. 序 論

한의학계에서는 『黃帝內經』(이하 『內經』으로 略稱)을 最古의 經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서적은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 있어서, 실제 임상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內經』 이후 東漢 末로 추정되는 시기에 저술된 『傷寒雜病論』은 『內經』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실제 임상에 그 내용을 적용시킨 것으로 理法方藥이 구비된 한의학 最古의 임상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서적은 너무나도 소략하게 病症과 治法·處方을 서술하고 있어, 저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의가들이 이에 대한 주석을 덧붙여 원문이 해석되고 있으나, 의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一 例로 桂枝加附子湯證도 증상에 대한 병기분석 및 처방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의가들의 견해가 분분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해석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桂枝加附子湯은 太陽病을 誤治하여 나타나는 제반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본 처방이 사용되는 病證의 病機에 대해 많은 의가들은 汗多로 인한 亡陽과 津液脫의 病機가 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桂枝湯에 附子를 加하는 이유를 亡陽을 회복시킬 목적, 즉 溫經復陽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법에는 하나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病機를 설명함에는 亡陽과 津液脫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으면서, 治法에 있어서는 溫經復陽의 한가지 측면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桂枝加附子湯과 관련된 諸家들의 견해를 정리하고 논자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방정균,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 의사학교실,  
033) 730 -0666, bjkdcw@sangji.ac.kr

## II. 本論

桂枝加附子湯證에 대한 해석에 있어 대부분의 醫家들은 亡陽과 津液脫의 病機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결과 附子를 加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즉, 本證의 病機를 亡陽과 津液脫로 규정하게 되면 病機와 處方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醫家들이 附子를 加한 이유에 대해 溫經 또는 復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溫經과 復陽을 통해 病機로 지적된 津液脫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역대 의가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논자의 견해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桂枝加附子湯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支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태양병에 과도하게 땀을 내어 땀이 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람을 싫어하며 소변을 보기가 어렵고, 사지가 약간 당기면서 屈伸하기가 힘든 경우는 桂枝加附子湯으로 치료한다.)<sup>18)</sup>

위에서 제시한 桂枝加附子湯證의 조문에 대해 논자는 역대 醫家들이 설명하는 病機論과 處方의 해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 1. 역대 醫家들의 견해

#### 1) 成無已

成無已는 “遂漏不止, 其人惡風”의 증상에 대해서 發汗法의 誤治에 의해 陽氣가 부족해져 피부와 주리가 不固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小便難”에 대해서는 『素問靈蘭秘典論』의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膀胱은 州都之官으로 津液을 저장하고 있다가 氣化작용에 의해 소변을 배설한다.)”<sup>19)</sup>는 구절을 인용하여, 汗出로 津액이

없어지고 陽氣가 허약해져, 陽氣의 施化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사지가 모든 陽의 근본이라는 인식아래, 汗出로 인한 亡陽의 상태와 津液脫의 상태가 겹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桂枝加附子湯의 효능에 대해서는 “溫經復陽”으로 설명하고 있다<sup>20)</sup>.

#### 2) 喻昌

喻昌은 “遂漏不止”에 대해 크게 땀을 내어 陽氣가 바깥을 호위하여 견고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상태를 물이 흐르듯 하는 상태로 보았다. “惡風”에 대해서는 腠理가 크게 열린 상태에서 風邪의 침습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小便難”에 대해서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것으로 인해 津液이 바깥으로 세어 버려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겹쳐 陽氣가 外脫되어 膀胱의 氣化 작용이 행해지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하였다.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津液이 脫盡되어 筋脈을 길러주지 못하고, 겹쳐 外風이 침입하여 急症을 더 심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전체적인 病機를 陽氣와 陰津이 모두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外風이 침입을 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근거하여 桂枝加附子湯의 효능을 固表驅風하면서 復陽斂液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1)</sup>.

#### 3) 張璐

部. p. 34.

20) 成無已.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126.

“太陽病, 因發汗, 遂漏不止, 惡風寒者, 爲陽氣不足, 因發汗, 陽氣益虛而皮膚不固也. 內經曰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出. 小便難者, 汗出亡津液, 陽氣虛弱, 不能施化. 四肢者, 諸陽之本也,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亡陽而脫津液也. 鍼經曰液脫者, 骨屬屈伸不利, 與桂枝加附子湯, 以溫經復陽.”

21) 陳燿 主編. 喻嘉言醫學全書尙論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p. 23.

“大發其汗, 致陽氣不能衛外爲固, 而汗漏不止, 卽如水流瀉之互詞也. 惡風者, 腠理大開, 爲風所襲也. 小便難者, 津液外泄而不下滲, 兼以衛氣外脫, 而膀胱之化不行也.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筋脈無津液以養, 兼以風入而增其勁也. 此陽氣與陰津兩亡, 更加外風復入, 與前條亡陽一證, 微細有別, 故用桂枝加附子, 以固表驅風, 而復陽斂液也.”

18) 成無已.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 126.

1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

張璐는 본 조문에 나타나는 병증의 病機에 있어서 喻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桂枝加附子湯의 효능에 있어서는 溫經散寒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처방에서 桂枝湯은 表의 營衛를 조화롭게 하는 효능이 있고, 附子를 加한 이유는 表의 元陽을 건장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桂枝加附子湯證은 陽이 虛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四逆湯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本 證은 表部의 陽이 虛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sup>22)</sup>.

4) 柯琴

柯琴은 “遂漏不止”에 대해 發汗을 지나치게 하여 陽氣가 머물러 설 바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惡風”에 대해서는 汗多亡陽으로 玄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風邪가 虛한 틈을 타고 침입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小便難”에 대해서는 表部에서 汗이 많이 남으로 인해 裏部의 津액이 손상을 입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陽氣가 筋을 길러 주는 데 陽氣의 손상으로 表部의 開合작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寒氣가 침습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柯琴은 表部의 陽이 虛하면 攝水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桂枝湯으로 心陽을 補하여 陽을 치밀하게 하면 漏汗이 저절로 그친다고 보았다. 또한 裏部의 陽이 虛하면 行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附子를 加하여 腎陽을 견고하게 해 주어야 하니, 陽이 제자리를 찾으면 小便難의 증상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桂枝湯에 附子를 加함으로써 内外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惡風의 증상은 저절로 없어지고 手足의 微急한 증상과 屈伸이 이루어 지지 않는 증상도 사라지게 된다고 보았다<sup>23)</sup>.

22) 張民慶, 王興華, 劉華東 主編. 張璐醫學全書·傷寒續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568

“大發其汗, 致陽氣不能衛外, 而汗漏不止, 卽如水流瀉之互辭也. 惡風者, 腠理大開, 爲風所襲也. 小便難者, 津液外泄而不下滲, 兼衛氣外脫, 而膀胱之氣化不行也.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過汗亡陽, 筋脈失養, 兼襲虛風而增其勁也, 故加附子于桂枝湯內, 溫經散寒. 用桂枝湯者, 和在表之營衛, 加附子者, 壯在表之元陽, 本非陽虛, 是不用四逆也.”

23) 李培生 編著.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5) 尤在涇

尤在涇은 “遂漏不止”에 대해 漏風과 같은 증상으로 인식하면서 발생 원인을 發汗으로 陽이 손상된 상태에서 風邪에 다시 침습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小便難”에 대해서는 陽의 기능을 腠理를 實하게 하고 津액을 운행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陽이 虛하여 바깥을 호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汗이 나고, 氣가 裏部에서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을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惡風,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風邪가 외부에서 盛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尤在涇은 이상과 같은 病機에 근거하여 桂枝加附子湯은 桂枝湯으로 解散風邪하고 營衛를 조화롭게 하며, 附子를 加함으로써 陽氣를 補助하고 아울러 虛風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sup>24)</sup>.

6) 吳謙

吳謙은 “遂漏不止”에 대해 解肌시켜야 할 太陽中風證에 發汗을 지나치게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상태에 대해 물이 흐르는 듯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惡風”에 대해서는 汗을 많이 났으므로 인해 주리가 열리고 表陽이 不固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小便難”에 대해서는 發汗 過多로 내부의 津액이 손상되어 膀胱의 津액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發汗過多로 津액이 외부에서 손상된 상태에서 다시 風邪가 침습을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桂枝加附子湯을 固陽斂液하면서

1996. p. 52.

“太陽病當汗, 若不取微似有汗而發之太過, 陽氣無所止息, 而汗出不止矣. 汗多亡陽, 玄府不閉, 風乘虛入, 故復惡風; 汗多于表, 津傷于裏, 故小便難; 四肢者, 諸陽之本.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 開闔不得, 寒氣從之, 故筋急而屈伸不利也. 此雖中陽虛, 不能攝水, 當用桂枝以補心陽, 陽密則漏汗自止矣. 坎中陽虛, 不能行水, 必加附子以固腎陽, 陽歸則小便自利矣. 內外調和, 則惡風自罷, 而手足便利矣.”

24)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傷寒貫珠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3.

“發汗傷陽, 外風復襲, 汗遂不止, 『活人』所謂漏風是也. 夫陽者, 所以實腠理, 行津液, 運肢體者也, 今陽已虛, 不能護其外, 復不能行于裏, 則汗出, 小便難. 而邪風之氣, 方外淫而旁溢, 則惡風, 四肢微急, 難以屈伸. 是宜桂枝湯解散風邪, 兼和營衛, 加附子補助陽氣, 兼御虛風也.”

和營衛하며 解風邪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25)</sup>.

7) 陳修園

陳修園은 “遂漏不止”에 대해서 發汗法의 太過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惡風”에 대해서는 땀이 물 흐르듯 하는 상태는 表邪가 제거되지 않은 것을 나타내므로 太陽病 처음에 있었던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小便難”에 대해서는 發汗過多로 表部에서 진액이 손상되면서 裏部의 진액이 고갈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大汗으로 亡陽이 되고, 亡陽으로 인해 진액이 脫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陳修園은 桂枝加附子湯에서 附子를 가한 이유를 少陰의 腎陽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陽이 견고해지면 止汗이 되고 止汗이 됨으로써 救液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26)</sup>.

8) 唐宗海

唐宗海는 桂枝加附子湯證의 病機에 대해 이전의 가들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 水寒이 맺혀 나타나는 증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四肢微急, 難以屈伸”의 증상에 대해 白芍甘草湯證의 陰液이 筋脈을 길러주지 못하여 발생하는 “兩脛拘急”의 증상과 대비시키면서, 本證의 증상들은 津液不足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때문에 附子를 가한 이

유에 대해 陽氣의 亡을 補하는 “溫水散結”의 효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7)</sup>.

이상의 諸家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遂漏不止”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醫家들이 크게 땀을 내거나 잘못 發汗시켜 陽氣가 바깥을 호위하여 견고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고, 喻昌·張璐·陳修園 등은 本症의 상태를 물이 흐르듯 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다. 한편, 尤在涇은 조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으니, 本症을 漏風과 같은 증상으로 인식하면서 발생원인은 發汗으로 陽이 손상된 상태에서 風邪에 다시 침습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惡風”에 대해서 成無已와 吳謙은 發汗過多로 인한 陽氣의 부족으로 皮膚와 腠理가 不固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喻昌·張璐·柯琴·尤在涇은 腠理가 크게 열린 상태에서 다시 風邪의 침습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陳修園은 惡風의 증상을 당초에 발병된 太陽病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小便難”의 경우는 成無已가 汗出로 진액이 모손되고 陽氣의 施化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한 이후로 대부분의 의가들이 成無已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다만 柯琴·吳謙·陳修園은 發汗過多로 인한 진액부족만 언급하고 있다. 한편, 尤在涇은 陽氣不足으로 氣가 裏部에서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여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唐宗海도 水寒이 맺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진액부족의 病機說을 부정하고 있다.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 成無已와 陳修園은 汗出過多로 인한 亡陽과 津液脫의 상태가 겹쳐

25) 吳謙. 御纂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p. 14. “太陽中風, 本當解肌, 若大發其汗, 如水流漓, 因而遂漏不止. 其人必腠理大開, 表陽不固, 故惡風也. 液傷于內, 膀胱津少, 故小便難也. 液傷于外, 復加風襲, 故四肢微急, 難以屈伸也. 宜桂枝加附子湯主之. 服依桂枝湯法者, 是于固陽斂液中, 和營衛解風邪也.”

26)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傷寒論淺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 395. “太陽病, 固當汗之, 若不取微似有汗, 爲發汗太過, 遂漏不止. 前云如水流漓, 病必不除, 故其人惡風猶然不去, 汗渙于表, 津竭于裏, 故小便難. 四肢爲諸陽之本, 不得陽氣以養之, 故微急且至難以屈伸者, 此因大汗以亡陽, 因亡陽以脫液, 必以桂枝加附子湯主之. 方中取附子以固少陰之陽, 固陽即所以止汗, 止汗即所以救液, 其理微矣.”

27)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傷寒論淺注補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200.

“此小便難, 是膀胱之水寒結也, 與五苓散之水結相似, 故五苓散用桂以溫之, 而此方更加附子, 正所以溫水散結, 『淺注』解小便難爲津液竭, 不知下文所謂證象陽旦, 按法治之而增劇者, 乃爲津液竭, 此節正是陽旦證, 此桂枝加附子即是陽旦湯, 正是招補亡陽, 非救其陰也. 四肢微急, 難以屈伸, 亦是諸寒收引, 故當用桂枝, 附子, 與下文兩脛拘急者不同. 下文兩脛拘急, 是陰液不養其筋, 故用白芍甘草湯. 觀下文證象陽旦者爲陰液竭, 即知此節是陽氣亡, 非陰液竭也, 互勘自明, 注家幸勿牽混.”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喻昌·張璐·吳謙은 津液이 탈진되어 筋脈을 길러주지 못한 상태에서 外風의 침습이 겹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柯琴은 陽氣가 손상되어 裏部의 閉塞 작용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寒邪가 침습한 것으로 보았고, 尤在涇은 외부에서 風邪가 盛한 것을 원인으로 보았다. 唐宗海는 水寒이 맺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陰液不足으로 나타나는 白芍甘草湯證의 “兩脛拘急”의 증상과 구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桂枝加附子湯의 효능에 대한 注家들의 견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成無己는 桂枝加附子湯의 효능을 溫經復陽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은 汗出過多로 발생한 亡陽을 치료하는 것에는 적합하지만, 成無己 자신이 病機로 지적한 津液脫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것이다. 喻昌·張璐·柯琴·尤在涇·吳謙·陳修園 등은 風邪가 여전히 남아 있거나 혹은 陽氣가 不固한 상태에서 다시 風寒邪의 침습을 받았기 때문에 桂枝湯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附子를 加한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즉, 喻昌·張璐·吳謙·陳修園은 附子의 효능을 固表함으로써 斂液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미 모순된 진액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비해 柯琴은 附子의 기능을 裏部의 陽을 견고하게 해주어 行水의 기능을 도와 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듯 보이지만, 그 자신이 小便難의 경우 裏部의 津液이 耗損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唐宗海는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의 病機에 대해 水寒이 맺힌 것으로 설명하면서 桂枝加附子湯에서의 附子의 효능에 “溫水散結”이라고 하였으니 타당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 2. 논자의 견해

本證의 病機에 대해 唐宗海를 제외한 대부분의 醫家들은 汗出過多로 인한 亡陽과 津液 耗損이 겹친 것을 인식하였고, 몇몇 醫家들은 風寒邪가 재차 침습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밝혔듯이 本證

의 病機를 亡陽과 津液耗損으로 볼 경우, 病機와 治方으로 적용된 桂枝加附子湯의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附子는 溫裏藥에 속하여 固陽補火散寒除濕하는 효능이 있어<sup>28)</sup>, 亡陽證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津液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약이다. 오히려 除濕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過用할 경우 燥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本草書에서 滋陰의 효능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지만<sup>29)</sup>, 附子가 滋陰의 효능을 갖게 되는 것을 附子의 직접적인 효능으로 보기가 힘들다. 오히려 다음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첫째 陽을 補함으로써 陽의 氣化 작용을 북돋우어 주고 그 결과 化水의 기능이 발휘되어 滋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둘째, 附子의 走而不守하는 효능을 이용하여 補血藥에 加하면 血分으로引入하여 부족한 眞陰을 滋養할 수 있는 것이다<sup>30)</sup>. 그러나 이 경우는 附子가 직접 滋陰하는 것이 아니라 化水나 行水의 기능을 통해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이다.

그러므로 桂枝加附子湯에서 附子는 滋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本證의 주 처방인 桂枝湯이 補血藥이 아니므로 桂枝加附子湯은 津液耗損에 적합한 처방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本證의 病機에 있어 津液耗損을 주장한 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醫家들이 本證의 病機를 津液 耗損으로 오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논자는 “遂漏不止”에 대한 오해를 그 이유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많은 醫家들이 “遂漏不止”의 증상을 물이 흐르듯 많은 양의 땀이 배출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뒤에 이어져 나오는 “小便難, 四肢微急,

28)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p. 331-332.

29) 黃宮繡 纂. 本草求真. 서울. 一中社. 1992. p25.  
“附子味辛大熱, 純陽有毒, 其性走而不守, 通行十二經, 無所不至, 爲補先天命門真火第一要劑. 凡一切沈寒痼冷之症, 用此無不奏效. 呃逆嘔噦, 膈噎脾泄, 冷痢寒瀉, 霍亂轉筋, 拘攣風痺, 癱瘓積聚, 督脈爲病, 脊強而厥, 小兒慢驚, 痘瘡灰白, 癰疽不斂. 其入補氣藥中, 則追失散之元陽, 入發散藥中, 則能開腠理以逐在表之風寒, 入溫燉藥內, 則能以祛在裏之寒濕. 獨書所云入補血藥, 則能以滋不足之眞陰. 緣陰與陽, 相爲依附, 補陽則所以滋陰.”

30) 申佶求 著.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p25

難以屈伸”의 증상을 연계하면 어느 정도 논리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분석이다. 그러나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의 원인이 반드시 津液不足에 의해 야기되는 증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으로 그 病機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遂漏不止”의 상황을 반드시 물이 흐르듯 과도하게 땀이 배출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仲景이 本證을 치료함에 있어 桂枝湯을 주 처방으로 하고 附子를 가한 것으로 보아, 本證은 여전히 桂枝湯證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遂漏不止”의 증상이 땀이 물 흐르듯 배설되는 위급증이라면 桂枝湯보다는 收斂을 주로 하는 다른 처방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遂漏不止”의 상태는 땀이 물 흐르듯 대량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郭雍은 自汗으로 해석하였고<sup>31)</sup>, 李培生은 漏라는 글자에 대해 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大量汗出이 아닌 小量の 汗出임을 강조하고 있다<sup>32)</sup>. “遂漏不止”의 의미를 이와 같이 小量の 汗出 또는 自汗 정도로 해석할 경우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 津液耗損에 의해 나타나는 병증으로 보아야만 하는 개연성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의 증상은 桂枝湯證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증상으로 보았을 때, 仲景이 附子를 가한 것에서 그 病機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小量이지만 땀이 계속해서 배출됨으로 인해 陽氣에 손상을 미치게 되고, 또한 많은 注家들이 지적하였듯이 誤治한 이후 재차 風寒邪의 침습을 받아 陽氣가 거듭 손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陽의 기능이 떨어져 行水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전신으로 津液이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陰液이 人體 내에서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증상들이므로 “走而不守”한 성질을 이용하여 津液을 전신으로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附子를 加味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桂枝加附子湯은 진액 모손이 심한 증에는 쓸 수 없는 처방으로, 본 조문에 나타난 증상들

은 陰液이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附子를 가하여 陰液이 전신으로 퍼져 운행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여전히 桂枝湯證이 남아 있고, 특히 “遂漏不止”라 하여 桂枝湯의 自汗證과는 차이를 보이므로, 附子の 表揚을 도와주는 기능을 통해 조절하고자 한 것이다.

### III. 結 論

桂枝加附子湯證에서 “遂漏不止”와 “惡風”에 대하여 대부분의 醫家들은 大量的 汗出로 인한 亡陽을 病機로 지적하였고, 특히 惡風에 대해서는 風邪가 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에 대해서는 많은 醫家들이 多量の 汗出로 인한 津液의 耗損과 亡陽으로 인한 陽氣의 不足이 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醫家は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본증의 원인이 津液不足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水寒이 맺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本證의 病機를 亡陽과 津液耗損으로 볼 경우, 病機와 治方으로 적용된 桂枝加附子湯의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附子는 溫裏藥에 속하여 固陽補火散寒除濕하는 효능이 있어 亡陽證에는 적용할 수 있지만 津液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약이고, 또한 除濕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過用할 경우 燥證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遂漏不止”에 의해 津液이 모손된다는 病機 분석은 것은 附子가 들어간 처방과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遂漏不止의 상태를 多量の 汗出로 보기는 힘들고, 다만 땀이 계속해서 나는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 그 양은 少量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의 증상을 仲景이 附子를 가한 것을 통해 그 病機를 유추해 본다면 반드시 津液不足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즉, 小量이지만 땀이 계속해서 배출됨으로 인해 陽氣에 손상을 미치게 되고, 또한 많은 注家들이 지적하였듯이 誤治한 이후 재차 風寒邪의 침습을 받아 陽氣가 거듭 손상된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陽의 기능이 떨어져 行水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

31) 郭雍 撰.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卷四 p13.  
32)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p47.

여 전신으로 津液이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陰液이 人體 내에서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증상들이므로 “走而不守”한 성질을 이용하여 津液을 전신으로 퍼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附子를 加味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桂枝加附子湯은 津液 耗損이 심한 證에는 쓸 수 없는 처방으로, 본 조문에 나타난 증상들은 陰液이 운행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附子를 加하여 陰液이 전신으로 퍼져 운행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여전히 桂枝湯證이 남아 있고, 특히 “遂漏不止”라 하여 桂枝湯의 自汗證과는 차이를 보이므로, 附子의 表揚을 도와주는 기능을 통해 조절하고자 한 것이다.

化社. 1989.

13. 申佶求 著. 申氏本草學. 서울. 壽文社. 1988.
1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 IV. 參考文獻

1. 吳謙. 御纂醫宗金鑑.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2. 陳燭 主編. 喻嘉言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3.
3. 林慧光 主編. 陳修園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4. 孫中堂 主編. 尤在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6. 張民慶, 王興華 主編. 張璐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7. 李培生 編著. 柯氏傷寒論注疏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8. 李培生 主編. 傷寒論.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 9권. 郭雍 撰. 傷寒補亡論. 北京. 中國書店. 1992.
10. 黃宮繡 纂. 本草求真. 서울. 一中社. 1992.
11.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共編著.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12. 成無已. 仲景全書注解傷寒論. 서울. 大星文